

NEWS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전남-부산,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맞손

도, 5·18 구술채록사업 추진
교육·기념공간 콘텐츠 활용

전남도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지역 5·18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5·18 관련 구술채록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연구기관인 5·18기념재단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1980년 5월 당시 전남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기존 구술기록 자료 조사·분석 등 전남 5·18 관련 사전 연구를 진행한 뒤 항쟁 참여도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민주화운동 당사자, 목격자, 가족 등 50여 명을 선정해 구술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구술채록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 등을 일반인과 학생 대상 역사교육자료와 향후 건립될 5·18 기념공간의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목포, 나주, 화순, 영암, 담양, 해남 등 개별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구술채록이 진행됐지만, 이번 구술채록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 자료 제작을 목표로 진행됨에 따라 전남의 5·18 항쟁사 전반을 재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시, 5·18기념 특별 교통대책
17~18일 버스·지하철 무료 등

광주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와 5·18민주광장 등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17일과 18일 이들 동안 시내 버스·도시철도, 교통약자이동 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5·18민주화운동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편리하게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용객 통계를 위한 승·하차 태그는 필수이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기념식 당일인 18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경유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30회 증회 운행, 행사 참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전야제와 본행사가 열리는 동구 금남로 일대 도로는 일정에 따라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전면 통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24일 5일이다. 이 기간에는 금남로 경유 시내버스 최대 27개 노선이 우회 운행된다.

24일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는 5·18마라톤대회가 열림에 따라 518번 버스는 오전 중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섬의 수도’·‘해양수도’ 간 전략적 해양파트너십 협약
김영록 지사 “실질적 연대로 대한민국 해양 미래 설계”

전남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3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와이씨텍(YC-TEC) 회장,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두 지역 간 해양협력의 새 출발을 선언했다.

협약은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남해안을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연결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역 간 교류를 넘어,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해양환경, 신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 연대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섬의

수도 전남과 해양수도 부산이 함께 대한민국의 해양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을 비롯한 해양물류 중심지이고, 전남은 국내 최대 섬 자원을 보유한 해양생태의 보고”라며 “두 시·도가 가진 상호보완적 해양 역량을 결합해, 해양을 매개로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섬 관광과 연계한 연안크루즈 신규 노선 개발, 양 도시 관광지 기반 공동 관광상품 기획, 주요 행사 공동 마케팅, 남해안 해양경제벨트 활성화 공동 대응 등이다. 특히 부산~여수 간 연안크루즈 노선은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두 도시는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연안크루즈를 취항하고, 기항지 중심의 관광코스를 공동개발해 해양관광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섬 체험, 힐링 콘텐츠, 야간 관광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연계형 콘텐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부산시 업무협약’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함께 추진된다.

전남도와 부산시는 또 해양행정 분야에서도 힘을 합친다.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항만개발 권한, 해양관광 인허가 등 해양산업 관련 법령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체

계를 구축하고 박람회를 통해 해양분권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정부승인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도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남면 금오도, 화정면 개도 일원에

서 펼쳐진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 지속가능한 해양국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5·18정신 전파”...영국 인플루언서 광주 팸투어

전일빌딩245·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 등 방문
역사·감성 조명...제작 콘텐츠 미디어에 공개

영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광주의 주요 문화 관광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를 콘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에 알린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영국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3명을 초청, 10~11일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팸투어는 한국관광공사 협업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총 90만여명의 팔로워

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기반 영국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와 주변 도시를 방문해 K-관광 콘텐츠를 제작한다.

첫날은 전일빌딩 245를 찾아 5·18 기념 공간을 둘러보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소설 속 사적지를 직접 걸으며 5·18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최대 문화 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지역작가 전시를 관람하고 활력 넘치는 동명동 거리 탐방, 미디어아트 야간관광 콘텐츠 ‘빛의 숲’ 등을 체험했다.

둘째 날은 양림동 역사 문화마을, 선교사 사택과 수제 막걸리 체험, 이이남 스튜디오, 팽귄 마을 등 광주의 예술·레트로 감성이 어우러진 공간을 탐방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번 팸투어를 콘텐츠로 제작해 다음 달 4일 한국관광공사가 여는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K-관광 로드쇼를 통해 현지 여행업체와 미디어에 공개한다. 장승기 기자 sky@

금호폴리켄 여수공장, EPDM 생산시설 증설

3000억 투자...초저온 중합 기술 적용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금호폴리켄(주) 여수공장이 3000억원을 투자해 EPDM(에틸렌 프로필렌 다인 모노머)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금호폴리

켄(주) 여수공장 EPDM(에틸렌 프로필렌 다인 모노머) 생산용 5라인 증설 준공식에 정기명 여수시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EPDM은 고기능성 특수 합성고무로 내열성·내오존성·내약품성이 탁월해 자동차 차체 실링, 타이어 튜브, 호스, 건설 부자재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증설 설비는 금호폴리켄의 독자적인 ‘초저온 중합’ 기술과 40년 공정 운전 비법이 접목된 미래형 공장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원가 경쟁력까지 갖췄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KIA 광주 홈경기서 ‘5·18 특별이벤트’

시,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홈경기 승리 기원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는 ‘5·18 특별이벤트’로 펼쳐진다.

광주시는 이날 ‘80년 오월광주’의 공동체 정신과 민주화 열망을 다시 새기고, KIA 타이거즈 홈경기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오월의 의미를 담은 이벤트와 응원단 운영을 KIA 구단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계기로 5·18 기념행사를 민주주의 축제로 확장하려는 광주시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으며, ‘오월광주의 승리’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홈경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응원단을 운

영하지 않았고, 팬들 또한 자발적으로 응원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제 5·18 정신을 시민 일상과 문화 속으로 녹여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5·18 민주주의 축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별이벤트 제안에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오월어머니집, 오월을 사랑하는사람들 등 5월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5월 단체들은 “시대가 변한만큼 5·18 정신의 확산을 위해 5월 18일 당일 KIA 타이거즈 홈경기 응원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인종 및 특이

공공기관 실적

사회적기업인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 목포시 수영정물정비단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바닥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삼향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